

오륙도 칼럼



류창희

그들은 엄마를 잃어버렸다.

칠 밤배나 되는 그들은 고향에 홀로 계시는 엄마에게 전화를, 자식을 키우는 하소연을 하고 다른 형제들 소식도 물어본다. 명절 때는 어김없이 찾아뵙고 합심하여 외국여행도 보내드렸다. 엄마는 채소밭을 일궈 해마다 고춧가루와 마늘을 보내주셨다. 늘 고향의 풍경처럼 제자리에 계시 줄 알았던 엄마, 엄마가 없어졌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한 장의 쪽지도 없이, 사라진 엄마를 찾으러 자주 다니던 약국으로, 친척집으로, 야산으로, 방죽으로 찾아다니다, 급기야는 전국의 무연고자 시신 안치장까지 찾아다녔다.

엄마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 마음속으로 엄마를 부를 수밖에 없을 즈음, 동네 아주머니 중에 체구가 비슷한 분을 모셔와 자식들의 가운데 자리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얼굴 위에 엄마의 사진을 덮어 컴퓨터 합성으로 가족사진을 완성하는 장면으로 TV <인간극장>은 끝났다.

우리 집 형제들도 주말마다 어른들이 계산 본가에 모였다. 언제나

가족사진

식구가 마당 가득했다.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꽃이 피듯 삼 형제의 여섯 손자 손녀들이 배경화면처럼 화목했다.

벚꽃이 화사하게 핀 날, 어머니께 사진을 찍자고 하니, 영산홍이 더 곱다고 나중에 찍자고 하신다. 영산홍이 병풍처럼 둘러 핀 날은 누가 여행 중이거나 어떤 연유라도 있어 한두 명은 빠지게 마련이다. 명절에 웃이라고 갖춰 입은 날은 오늘날 날이나며 내년을 기억하신다. 이래저래 차일피일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하για, 그까짓 사진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남의 집 거실벽에 걸려 있는 정지된 사진 한 장보다 늘 한 울안에서 벽적거리는 가족의

활동 모습이 더 소중했을 것이다.

그런데 노닥담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워낙 건강하셨던 터라 하리가 깨끗한 정도로 금방 나오시려니 여겼는데, 혼자서 일어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병원생활을 하신 지 반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 형님댁과 합가를 하는 날 어머니가 외출을 도대체 무엇인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찾아 해매던 그들과 무었이 다른가, 어머니가 잠시를 힘 들어하시니 사진사까지 마음이 급하다. "자 한 번만 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구령에 따라 입가에

에는 웃음도 살짝 지어보건만, 14명 각자의 가슴에는 붉은 빗줄기가 후드후드득 죽비처럼 때리고 있었다.

불안한 응급소리를 내며 구급차로 모셔왔다. 병원용 간이집대에서 조심스럽게 휠체어로 옮겼다.

급한 마음에 환자복 위에 편안하게 입으시던 자주색 누비저고리를 걸쳐 드렸다. 어머니는 순간순간 급하게 서두르는 눈빛들 속에서 '무슨 일이구나. 왜들 이렇게 서두르는지...' 오히려 구경꾼처럼 우리를 뽀글리며 바라보신다. 그러면 서도 뒷저고리를 손으로 자꾸 벗으려고 시늉하신다. 은은한 비둘기 빛 생 고사 앓은 한복을 찾아 입혀드리니, 그제야 빙긋이 웃으신다. 나는 아무도 몰래 새끼손가락에 립스틱을 묻혀 어머니 입술에 살짝 발라 드렸다. 화색이 도는 듯 금세 고우셨다.

계절마다 꽃 같은 날들도 많았건만, 시(時)를 다루는 소란스러움에 도대체 무엇인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찾아 해매던 그들과 무었이 다른가, 어머니가 잠시를 힘 들어하시니 사진사까지 마음이 급하다. "자 한 번만 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구령에 따라 입가에

었다. 목은 가지에 꽃 피고 새 울고 봄이 오고 봄이 가고 또 봄이 오고... 잠시 정지화면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CCTV처럼 일상이 돌아간다.

햇살 좋은 날은 꽃그늘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여행도 간다. 어찌 살면서 맑은 날만 있겠는가. 비가 내리고 빗물에 마음까지 찢는 날에는 수목화 한 장 그리듯, 빗바뀐 글을 쓴다.

난 아직도 긴박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진다. 그래도 그날, 그 사진이라도 안 찍었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살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듯, 명절이나 생신 제사 시사 등.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나는 카메라를 청진기처럼 들이댄다. 아버지 아주버님 형님 동생 조카들, दा소 서열의 관계가 어색할지라도 디지털카메라 앞에서는 모두 활짝 웃는다.

꽃피는 봄, 이제야 그날의 가족사진을 편안하게 벽에 건다.

수필가·용호1동

신선대

<171>

채 규홍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일라 난방유 차량의 용량 확인하는 것처럼 정화조 분뇨수거차량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부착해 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청소업자와 주민간의 인정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이행 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도 용량별 가격표를 이면에 표기 해 주길 바란다.

박영준(우암1동)

■ 나의 생각

천안함, 그 아픈 이름



박은경

유난히 봄이 더딘 운동장 한편에 노란 개나리가 서글프게 활짝 핀 지난 4월 15일 오후. 그들을 한쪽에 감싼 천안함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울려졌습시다. 20일간의 국빈이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건만, 실종되었던 44명의 병사 중 36명이 끝내 시신으로 돌아오고 말았습시다. 우리의 동생, 아들 같은 꽃다운 젊은이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더러는 가족과 안부를 묻다가 영문도 모르고 당한 일이라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배는 순식간에 침몰했고, 그들의 꿈과 젊음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버렸습시다. 안타깝고 답답하였습시다.

슬픔에 정신을 놓고 목놓아 남편을, 아들을 부르며 몸부림치는 유가족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학기 초 업무와 학생들 생활지도로 힘든 하루하루에 투정하고 우울해 한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짐을 느꼈습시다. 내가 만약 저들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이고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할 뿐이었습시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지금, 꽃 같은 아니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지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잔인한 4월이지만, 천안함, 그 아픈 이름을 뒤로하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용호초등학교 교사



선용의

1000자 지혜 ㉑

달콤한 유혹

신 맛, 쓴 맛, 짠 맛, 매운 맛, 단 맛, 이 다섯 가지 기본 맛을 오미(五味)라고 한다. 이 다섯 가지 맛 중에서 우리의 구미를 가장 당기게 하는 것이 단 맛(甘味)인데, 단 맛을 내는 이 당분(糖分)은 인체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구미에 당긴다고 해서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비만 당뇨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단 맛뿐 아니라 술이나 담배 그리고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인터넷이나 약물도 오랫동안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중독(中毒)이 되어 그 구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현학편(賢奕編)에 나오는 우화인데, 술은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짐승 중에 원숭이의 일종인 성성(猩猩)이도 술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성성이를 잡으려면 먼저 향기 좋고 달콤한 술을 빚어 술통에 넣고 또 술을 퍼서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기의 그릇을 준비하여 성성이가 자주 출몰하는 산기슭에 늘어놓은 뒤, 풀을 엮어 신발을 만들고 그걸 서로 엮어 길가에 놓아둔다.

성성이는 원래 엉리한 짐승이라 그것을 보고 자기들을 유혹하여 잡아가려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람결에 실려 오는 술 냄새에 코를 발빨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우두

머리가 무리를 향해 말했다.

"코를 간지리는 저것이 도대체 뭐지? 술? 그래, 많이 마시면 안 되겠지? 조금 맛만 보는 것은 괜찮을 거야. 그렇지?"

우두머리가 작은 그릇을 들고 가서 먼저 술맛을 보고 코를 하늘로 치켜들자 다른 성성이들도 앞을 다투어 작은 그릇을 하나씩 들고 가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간을 욕하며 그곳을 떠났다. 조금 지나 성성이들은 조금 큰 그릇을 갖고 와 술을 퍼마시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욕한 뒤 그곳을 떠났다.

왔다갔다 하길 여러 차례, 성성이들은 술의 단맛을 이기지 못하고 이번에는 큰 그릇으로 퍼마신다. 그러면서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제력(自制力)마저 잃게 된다.

술에 취한 성성이들은 비틀거리며 풀로 엮은 신발을 신고 장난을 치다 결국 사람들에게 잡히고 만다. 지혜롭다는 성성이는 그것이 유혹이란 것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하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끝내는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간 것이다. 우리 사람 역시 그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즐기고 빠져든다면 성성과 다를 바가 있겠나.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대학로에 콘돌자판기 설치

낙태가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콘돌자판기가 설치된 대학은 전무하다. 프랑스에선 1975년 낙태가 합법화됐다. 이는 68년 이후 지속된 권리와 성에 대한 자유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프랑스에선 길거리에도 콘돌자판기를 볼 수 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 콘돌자판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자판기 설계와 디자인을 공모하여 다양한 제품을 구비한 멋진 디자인의 콘돌자판기를 설치한다면 머지않아 부산의 명물로 자리잡을 것이다. 늘어

나는 미혼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청소년 성교육·상담 전문기관 개관 행사와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다.

이수열 (대연6동)

불법광고물 부착 안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사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나 이해하지만 도로변과 골목길 그리고 주택가 벽과 담에 마구잡이식으로 붙어있는 광고물을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공해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이나 운전석 창에까지 각종 광고 전단지를 꽂아 창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경찰서 앞 주·주차 단속을 건의하고 신 대연6동 정운영님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건의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낙농길(경동메트럴~정구아파트) 구간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우리구에서는 구간을 물론 야간에도 수시 순찰 및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정찬운)

자전거 횡단보도 협의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의견을 주신 대연6동 류용규님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남구에는 2009년에 부산시 최초 시범사업으로 대연동 용소삼거리~용호동 LG메트로시티구간과 용호동 매립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개설된 도로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자전거 횡단도

(교통행정과·안선정)

■독자의 시

철책 근무 투입 전 기도

사랑의 하느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황혼이 깃드는 시각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으니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젊음과 주위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외로운 시간에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원하옵나니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게 하소서

내가 철책의 몇 미터를 담당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으며

나의 이 직임이 내부보안제와 가정에

평안한 잠을 이루게 하며 내 나라 번영의

바탕임을 알게 하소서

-1981년 중서부 전선의 철책 앞에서

■ 수필마을

봄의 영상



박은경

황량하던 벌판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작은 새가 낮게 울부짖는 계절이 오면 고향 집 뒷밭가의 도랑에는 물이 흐른다.

대지에 생기가 돌면서 겨우내 움츠려 있던 새싹들도 본격적인 생장을 거듭하고 논논밭에 바쁜 농부는 객토에 앞서 풀 대기를 시작한다.

밭두렁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한 보리만이 하루가 다르게 키를 키우고 양치바를 언덕을 따라 돌아나 꽃밭들은 선선한 바람에 온몸을 흔들면서 새봄이 왔음을 알려 주는 것 또한 이 맘 때가 아니냐?

마를 앞을 버티고 선 커다란 느티나무에는 아기의 손을 닮은 앙증맞은 새순들이 연둣빛으로 자태를 뽐내고 우물거는 사철나무 이파리가 햇빛에 반사되어 자기만의 풋풋한 향기로 정신을 흐트러 놓으면 봄은 어느 새 우리 집 앞마당까지 와 있었다.

이때가 되면 아침 일찍 들일 가진 할아버지는 저녁 해가 넘어서야 잔기집 소리와 함께 들어오시고 지게에는 어김없이 풀미나리와 햇살장 같은 푸성귀가 저녁한 감으로 들어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우물가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세수를 하면서 삶이 고단함을 달래셨을 테고 고무신에서 뽀뽀뽀 목소리가 나도록 흠뻑을 씻어 내던 모습은 아직도 나를 일곱 살 어린 시절로 되돌려 놓곤 한다.

봄이 무르익을 때면 할아버지는 켜고 고무마와 대나무 도시락에 밥을 담아 지게에 지고 할머니는 막걸리 한 주전자와 함께 나의 손을 이끌고 앞산 뒷밭으로 봄나들이를

갔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밭일을 하는 동안 나는 언덕에 피어 난 살구꽃에 마음을 빼앗긴 채 밭 가장자리에 심어 놓은 뽕나무 잎으로 흉산난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소박한 촌로와 어린 아이의 행복 한 나날들은 봄날의 정취만큼이나 푸근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취학을 위해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옮겨 오면서 낯선 도시에서의 두렵고 거친 생활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이제 시간이 흘러 따뜻한 햇살 아래 비스듬히 드러누워 땀내길하는 황소의 무릎한 노닐이 잔영처럼 떠오르는 봄이면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으로 증병을 앓는다.

어쩌면 이렇게도 내 가슴 속의 봄은 시골에서의 단편적인 일곱 살 적 추억과 겹치면서 해마다 사십 대 후반을 살아가는 나를 흔들어 놓는지 모르겠다.

이번 주말에는 또 어디로 발길을 어떤 시절로 되돌려 놓곤 할까?

그 옛날 나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어디론가 떠날 행복 한 마음으로 벌써부터 바람(?)이 들이

사업가·용호1동